

Inter BEE 2025 참관기

글. 이진범 방송과기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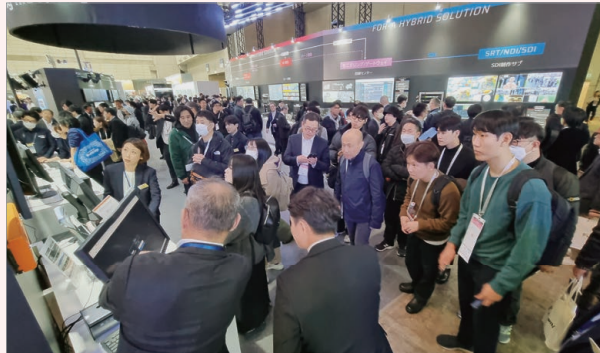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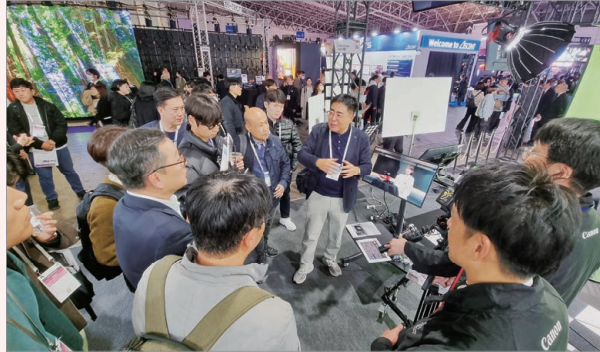
행사명 Inter BEE 2025
기간 2025년 11월 19일 ~ 11월 21일
장소 마쿠하리 멧세/치바시 미하마구
규모 Hall 2~8
참석 총 34,072명
주최 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

Inter BEE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종합 미디어 행사 중 하나로, 지난 11월 19일부터 3일간 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1,079개 사, 1,985개 전시 부스가 참여하며, 마쿠하리 멧세 전시장의 2홀부터 8홀까지 7개 홀에 걸쳐 '전문 오디오', '엔터테인먼트 및 조명', '비디오 제작/방송 장비', '미디어 솔루션'의 4개 카테고리로 나뉘어 전시되었다.



Inter BEE 2025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THE KOREA BROADCASTING ENGINEERS & TECHNICIANS ASSOCIATION



각 부스에서 출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원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참관단 단체 사진



소니는 클라우드, AI, IP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강력한 통합 생태계를 전시했다. 참관객으로 가득찬 부스에서는 카메라 트래킹 시스템 OCELLUS, HawkREPLAY(4배속 UHD 슬로우모션 리플레이), 카메라 제어 네트워크 어댑터인 CNA-2, IP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원격 및 분산 제작 환경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라이브 프로덕션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하도록 설계된 모듈형 생태계 네트워크 라이브(Networked Live) 등이 메인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IBC 2025에서 첫선을 보인 PXW-Z300은 촬영 단계에서부터 영상 파일에 직접 디지털 서명을 내장하는 세계 최초 캠코더로 1/2인치 4K 3-CMOS Exmor R 센서, 최신 BIONZ XR 이미지 프로세싱 엔진, 그리고 전용 AI 프로세싱 유닛을 탑재했다.



소니 부스 전면의 세미나 공간



BVM-HX3110 31인치 대형 모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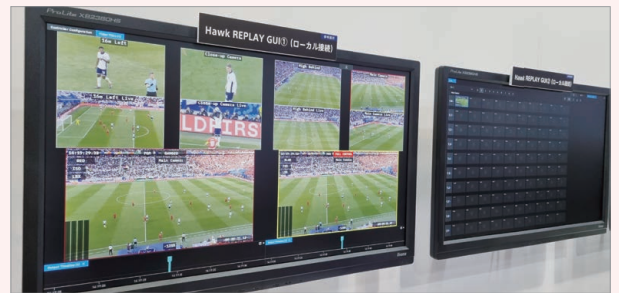
버추얼 프로덕션 구현



VENICE 2, OCELLUS, 버추얼 프로덕션 톨셋 시연



Networked Live 전시 공간



HawkREPLAY 전시



소니의 카메라 시스템 전시



소니의 최신 캠코더 PXW-Z300



Canon은 이번 전시를 LIVE/BROADCAST와 CREATIVE/PRODUCTION 두 축으로 나누어, 방송 현장과 영상 제작 현장을 모두 지원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안했다. 내년 발매되는 전문가용 PTZ 카메라 CR-N400 / CR-N350과 메인 카메라 움직임에 연동하여 여러 리모트 카메라를 제어, 스튜디오 공간을 가상 확장해 다양한 화면 구성이 가능한 '멀티카메라 오케스트레이션'을 선보였다. 그 외에도 Canon은 디지털 시네마 카메라 EOS C50, 미러리스 카메라 EOS R50 V, EOS VR SYSTEM, 방송용 신규 줌 렌즈 CN5×11 IAS T/R1 등 최신 영상 장비와 솔루션을 전시했다.



캐논 부스 전면



EOS C400을 통한 가상 스튜디오 시연



멀티카메라 오케스트레이션 시연



자연스럽게 메인 카메라에 연동되는 장면 시연



방송용 신규 줌 렌즈 CN5×11 IAS T/R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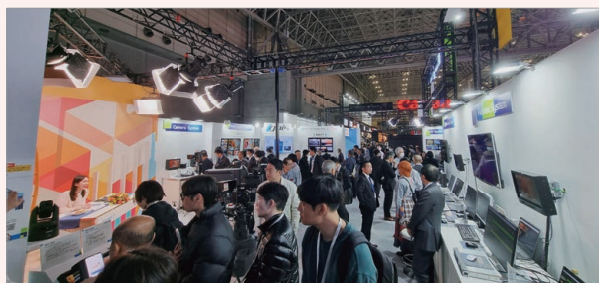
EOS C50 전시



Ikegami는 '변화에 유연한 이미지 제작'을 핵심 콘셉트로, 카메라·전송·신호 처리·편집까지 아우르는 통합 방송 솔루션을 전시했다. 메인 제품은 4K UHD 글로벌 셔터 3CMOS를 탑재한 소형 멀티 퍼포즈 카메라 UHL-X40으로, LED Wall 촬영에 강하고 UHD·HD 동시 출력, 최대 10km 광섬유 전송 등으로 스튜디오·중계·라이브 이벤트 제작에 모두 대응한다. 또한 새 7인치 OLED 뷰파인더 VFE-P711AD를 공개해 고대비·고채도 표현과 정밀한 포커싱을 강조했다. 더불어 소프트웨어 기반 제작 플랫폼 ignis 시리즈를 중심으로 실제 방송국 운영 흐름을 재현한 '토탈 워크플로우 제안'을 선보이며, 장비 전시를 넘어 시스템 통합형 제작 환경을 강조했다.



Ikegami 전시 부스



Ikegami 부스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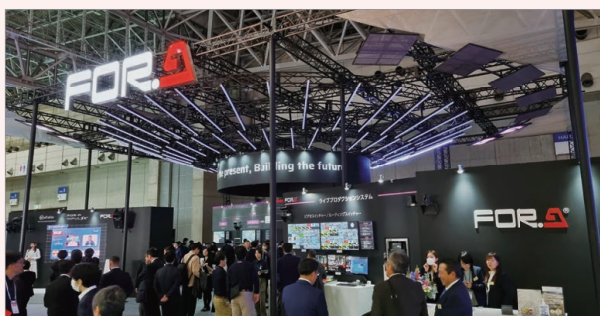
미디어 신호 처리 소프트웨어 플랫폼 ignis



방송국의 실제 운영 흐름을 재현한 토탈 솔루션 전시



For-A는 AI 기반 스포츠 방송 솔루션 AiDi Sports Hub를 중심으로 전시했다. 이 플랫폼은 선수 속도, 위치, 거리, 각도 등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2.5D 필드 렌더링과 골프공 궤적 추적, 얼굴 인식 기반 프로필 오버레이, 자동 스코어보드 그래픽 등 다양한 자동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야구, 축구, 골프 등 스포츠 중계를 기존 수동 연출과 후반 편집 없이 실시간·자동화·데이터 기반으로 제작할 수 있다. 로컬 PC 환경에서도 운용 가능해 클라우드나 대형 서버 없이도 적용 가능하며, 방송사와 제작사가 비용과 인력을 절감하면서 고품질 중계를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주목받았다.



For-A 전시 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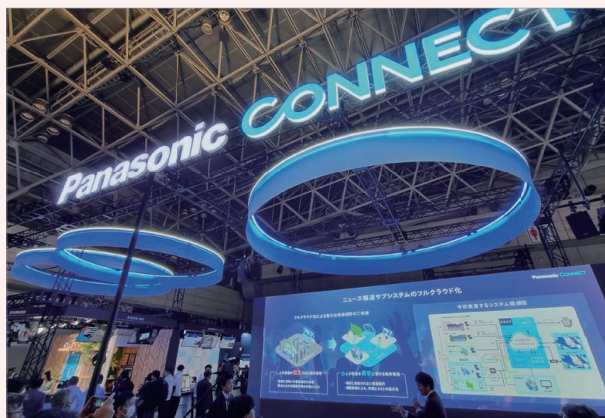


AI 기반 스포츠 방송 솔루션 AiDi Sports Hub



IMPULSE 라이브 제작 플랫폼을 통한 하이브리드 솔루션 전시





Panasonic 부스 전면

AG-CX20, 새로운 리모트 카메라 컨트롤러 AW-RP200GJ 등이 전시됐다. 또한 소프트웨어 제작 플랫폼 KAIROS, Media Production Suite, AI 기반 광고 심사 등 신호 처리·편집·송출을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Panasonic은 장비 단독 전시가 아닌, 전체 방송 제작 환경을 재설계하는 토탈 솔루션을 강조했다.



Panasonic은 '현장이 연결되고, 변화하고, 확장된다' (Connecting, Changing, Expanding the Workplace)를 콘셉트로 클라우드·IP·자동화 기반의 차세대 제작 워크 플로우를 전면에 내세웠다. 뉴스 제작 서브시스템을 완전 클라우드화한 클라우드 뉴스 제작 모델을 시연하며, 원격지와 실시간으로 연결된 제작 환경, Deaflympics 2025 사례를 활용한 원격·접근성 강화형 방송 모델을 소개했다. 카메라 라인업에서는 세계 최초 자동초점을 탑재한 4K 스튜디오 카메라 AK-UCX100, 소형 멀티퍼포즈 4K 카메라 AK-UBX100, 전문가용 핸드헬드 AG-CX370/



AI 영상 제작 시연



AI 제작솔루션 GUI



소형 멀티퍼포즈 4K 카메라 AK-UBX100



신제품 AW-UE150A를 비롯한 카메라 전시



소프트웨어 제작 플랫폼 KAIROS 솔루션 워크플로우





KAIROS 컨트롤러 AT-KC10C1G 등 전시



NHK(NHK Technologies)는 ‘∞Technologies! 기술의 힘으로 미디어를 앞으로’를 콘셉트로, 방송·편집·배포·체험까지 아우르는 통합 기술을 전시했다. 주요 전시는 AI 기반 영상 처리(얼굴·번호판·간판 자동 블러링/제거), 자연어 기반 하이라이트 생성, IPDC 재난 방송, 8K 이머시브 영상·공간 오디오 체험, 저지연 Bluetooth Auracast 오디오, 로컬 5G 기반 원격 제작, 휴대형 8K 3D 프로젝터 등이다. 또한 방송국 건물·송신탑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과 DaVinci Resolve용 자동 편집 스크립트를 선보이며, 방송 규정 준수와 작업 효율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NHK는 단순 장비 전시를 넘어 AI·IP·클라우드·몰입형 콘텐츠를 결합한 미래형 미디어 제작 환경을 제안했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상세히 전시한 NHK 전시 부스



2025년 10월 1일에 기존의 NHK PLUS 후속으로 새로운 인터넷 배포 서비스 NHK ONE



DaVinci Resolve에 방송용 포맷을 자동 설정해주는 스크립트 개발



NHK 기술연구소의 연구 결과 전시



NHK × JEITA의 합동 부스에서는 방송 100년을 기념해 과거의 방송장비들을 전시했다



전시장 내 주제별 세미나

전시장을 둘러 보며 곳곳에서 다양한 주제를 메인으로 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의 메인 컨퍼런스인 INTER BEE FORUM을 비롯해 스피커 및 헤드폰/마이크를 체험하고 시연하는 INTER BEE EXPERIENCE, 영화 제작을 주제로 연출, 촬영, 조명, 음향 등 트렌드와 기술을 살펴보는 INTER BEE CINEMA, IP를 주제로 콘텐츠 제작의 효율을 강조하며 원격 제작, 클라우드 활용, 자동화 등의 주제를 살펴보는 INTER BEE DX × IP PAVILION, 콘텐츠 제공자로서 방송사의 비즈니스 협업에 대해 살펴보는 INTER BEE IGNITION × DCEXPO, 차세대 미디어 전력과 사업 플랫폼에 대해 공유하는 INTER BEE MEDIA Biz, 최신 제작 도구와 서비스를 통한 변화하는 제작 워크플로우를 체험해볼 수 있는 INTER BEE CREATIVE 등으로 구성되었다.

INTER BEE FORUM A diverse conference program featuring experts from the media and entertainment industry.	Exhibitor Seminar Exhibitors share the latest trends and insights directly with industry professionals.
INTER BEE EXPERIENCE The evolution of audio never stops—immerse yourself in the ultimate sound experience.	INTER BEE CINEMA A professional community dedicated to advancing the future of filmmaking.
INTER BEE DX × IP PAVILION Breaking boundaries through collaboration—driving content production DX with MoIP and software-based workflows.	INTER BEE IGNITION × DCEXPO Exploring the Evolution of Media: Technology, Region, and Archive.
INTER BEE MEDIA Biz Exploring challenges and solutions in the evolving media and content business.	INTER BEE CREATIVE Creators unite to shape the future with innovative production tools.
The 62nd JBA Symposium of Broadcast Technology Connecting Commercial Broadcasters in Japan to Report on the Latest Information and Results with Broadcasting Technolog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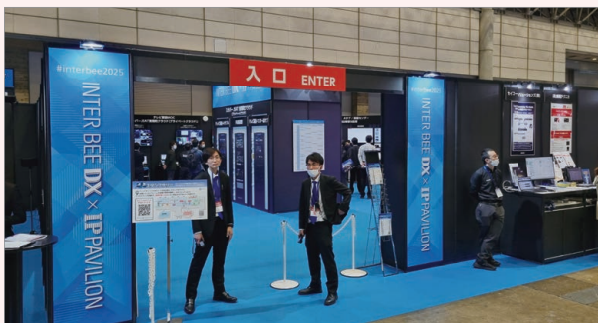
INTER BEE IGNITION x DCEXPO 세미나장



INTER BEE CINEMA 세미나장



INTER BEE DX x IP PAVILION 세미나장



INTER BEE DX x IP PAVILION 연계 전시 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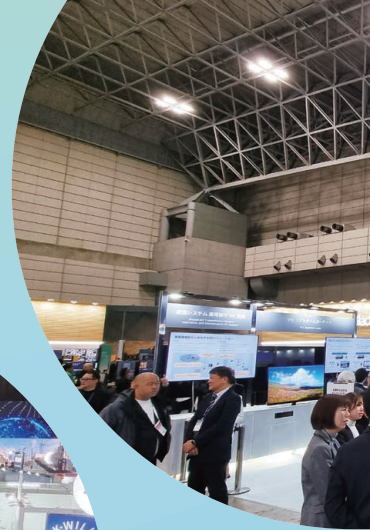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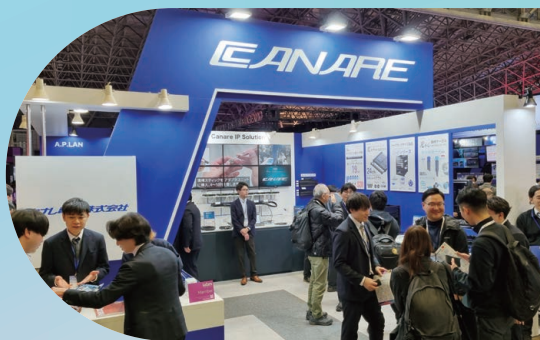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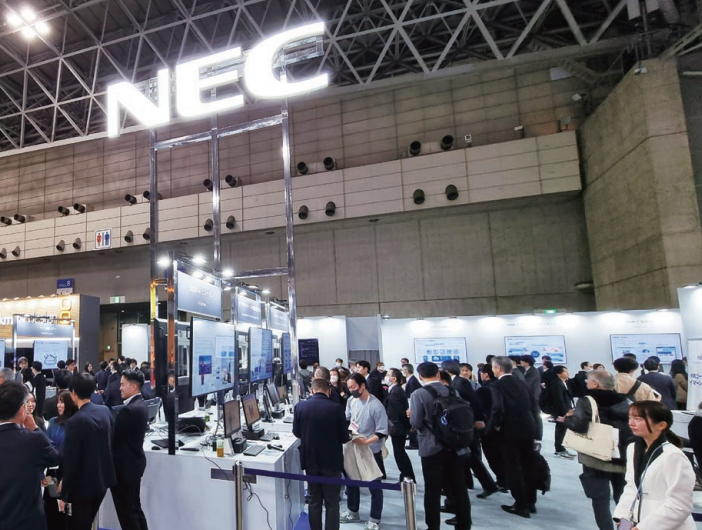
INTER BEE DX x IP PAVILION 세미나 스케줄



많은 참관객이 참석한 INTER BEE MEDIA Biz

전시장 주요 부스





참관을 마치며

오랜만에 방문한 Inter BEE 2025였다. 일어로 가득한 전시장이었지만 자사의 색을 그대로 구현한 다채로운 부스들과 전시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 부스에서는 역시 AI를 활용한 제작과 IP, 클라우드 시스템 통합 방향으로 많은 업체가 전시하고 있었다. 각 제품은 하나의 기능이 아닌 다양한 기능을 갖추어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했으며, 제품과 시스템이 결합해 새로운 솔루션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또한, 부스 전시의 스펙트럼도 넓어 영상, 음향, 조명을 넘어 하이파이, 방송용 랙 등 다양한 전시를 한 공간에서 볼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전시장 안이 꽤 조용하고, 엄숙했다는 것이다. 물론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라 시끌벅적했던 곳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라서 개인적으로 부스를 관람하기에 편했던 기억이 있다. 일정이 있어 Inter BEE 전시장에 오래 있진 못해 아쉬운 마음이 남는다. 많은 참관객으로 붐볐던 부스 내에서 성실히 자사의 부스에 대해 소개해 준 담당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を 건낸다. 🙏

